

조선로동당의 간부정책

中川雅彦*

-----〈목 차〉-----	
I. 머리말	VII. 「간부의 혁명화」
II. 간부정책의 의의	VIII. 「유일사상체계」
III. 간부부족문제	IX. 「배움의 나라」
IV. 「4월테제」	X. 충실성과 실무적 수준
V.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적 원칙」	X. 맷음말

I. 머리말

체제의 차이를 불문하고 정치권력은 통치자와 간부들과의 관계 위에 성립한다. 일당독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 간부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도적 역할을 한다. 거기서는 행정 경제간부들은 당 간부의 지도에 따라 당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할 뿐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책결정 과정도 행정기관보다 조선로동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조선로동당의 간부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권력구조, 정책결정 과정을 밝히는 연구의 일부분이 된다.

정치권력을 구성하는 다른 중요한 기둥은 군대와 경찰 등 물리적 폭력기구이다. 1948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조선인민군」에 관한 조항이 있었는데, 1972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그 조항이 없어졌다. 1968년의 『조선중앙년감』에서는 조선인민군은 「당의 혁명적 무력」으로 되어 있다(『조선중앙년감 1968』: 123). 1970년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도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력」이라는 조항이 덧붙여졌으나, 1972년 헌법에서 조선인민군에 관한 조항이 없어진 것이다. 한편 1975년 2월 7일 조선인민군 창건 27돐 경축 중앙보

*일본 아시아 경제연구소 동향분석부

고회에서 인민군 참모총장은 조선인민군은 「김일성동지의 군대」라고 말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76』: 302). 이상의 과정을 볼 때 조선인민군은 1967-68년 경에 사실상 당 직속의 군대가 되고 1975년까지 김일성 직속으로 된 것으로 추측된다.

정보기관에 관하여는 1973년 5월 정무원의 사회안전부에서 정치보위국이 독립하여 「국가정치보위부」로 되었다. 국가정치보위부는 김일성 직속인지 당 중앙위원회 직속인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무원에는 속하여 있지 않다(鐸木昌之, 1992; 孔卓虎, 1976: 180-181).

여기서는 군대, 정보·치안기관들의 간부는 취급하지 않고 행정·경제기관의 당간부들에 대한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로작」 중에서 간부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의 간부정책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Ⅱ. 간부정책의 의의

간부정책이란 「간부사업」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간부사업이란 간부들의 선발·배치·양성이다. 간부란 각 기관 단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군」(일꾼)이다. 「일군」이란 각 기관 단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 전체를 말한다. 평양에서 나온 일본말 번역에는 「일군」이 「활동가」로 표기되어 있다.

「지도간부」 혹은 「지도일군」은 간부들 중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지도간부」는 공장의 경우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을 말한다.

「간부」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어느 직위까지 「간부」라고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당위원회의 경우 「책임비서」를 「책임간부」, 「책임일군」, 「지도간부」, 「지도일군」으로, 「비서」를 「간부」라고 요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각급당위원회는 중앙의 경우 당대회에서, 지방의 경우 당대표자회의에서 선거를 통하여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위원회 후보위원 중에서 보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간부사업 중에서 선발과 배치는 필요치 않은 것이다. 1946년 당의 처음 규약에서는 그 원칙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부기관의 간부들이 상부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조선로동당은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도 중앙위원회가 정한 규칙과 수속에 따라 보궐선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상부기관은 하부기관에 결원이 생길 경우 책임간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오늘 우리 현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인민 경제의 규모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많은 새로운 간부들이 자라나며 또 간부들이 이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 지도기관 성원들 중에서도 총화기간에 적지 않은 위원들이 해당 당 조직으로부터 이동하게 되므로 당 위원회들이 집체적 합의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부 당 지도기관 성원들이 당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며 사업에서 이러한 과오를 범하여 당 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위원으로 계속 사업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집체적 합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위원들은 소환하고 그 대신에 새로 보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이러한 실정으로부터 당 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는 위원 및 후보 위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동시에 당 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는 결원된 위원 수 만큼 해당 당위원회 후보위원 가운데서 보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특히 도(직할시), 시(구역), 군당위원회 전원회의에는 후보 위원이 아닌 당원들 중에서 결원된 위원을 보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면 결원된 위원을 후보위원이 아닌 당원들 중에서 보선하는 것이 왜 필요하며 그것은 어떤 원칙에서 하는가.

그것은 당 지도 기관을 가장 당성이 강하고 사업에서 전개력이 있는 우수한 핵심 당원들로써 꾸려야만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실천적 경험은 당 지도 기관 성원들이 이러한 이유로 소환되고 그 대신 새로운 간부들이 상급 당에서 파견되거나 등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당 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그를 비록 후보 위원이 아니라도 결원된 위원 대신에 새로 당 지도 기관 성원으로 보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상급 당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당 당 위원회(당 세포와 당 분세포의 경우도 포함하여)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새로운 당 일군이 파견되어 온다면 해당 당 위원회는 응당히 그들 위원으로 보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상무 위원 또 집행 위원으로도 선거할 수 있다.」(재일본조선인통신교육협회, 1963: 166-167).

이 설명에 있는 이유, 즉 간부들의 빈번한 이동, 새로운 간부 선출,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우수한 간부 보충의 필요성 등의 이유가 사실상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사회사정을 생각하면 당간부의 심각한 부족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또 맑스-레닌주의 정당의 기본인 「철의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조선로동당(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첫번째 과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에 책임간부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은 하부기관의 선거의 형해화를 초래한다. 그것이 제도화되면 소련·동구의 임명간부표 (nomeklature)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될 것이다. 하부기관의 책임자를 상부 기관이 임명하는 제도는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을 통제하는 극히 유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위원회가 행정·경제기관, 공장, 기업소의 책임자의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 당이 국가를 지도·통제하는 시스템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은 당에 대하여 반작용을 초래한다. 당위원회가 행정·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면 당위원회가 행정을 대행하는 「관료화」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창건 때로부터 정권당이었던 조선로동당이 이상과 같은 간부부 족해결과 중앙집권제 확립의 과업, 당조직의 관료화 방지의 과업에 직면하여 어떻게 하여왔는지 살펴보자 한다.

III. 간부 부족 문제

1945년 8월에 소련군에 의하여 해방된 북반부에서는 10월 현재 조선로동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조직되었다. 12월 17일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회의 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은 「실지사업에서 겸열되고 준비된 지도적 간부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일성은 평안북도 보안부장의 부정사건을 예로 들고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나, 친분관계·친척관계로 간부가 배치되는 현상을 지적하여, 간부양성 배치 겸열 통제 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의하였다(김일성, 1945).

1946년 6월에는 중앙당학교가 창립되었다. 중앙당학교는 나중에 「김일성고급당학교」로 개칭한다. 김일성은 중앙당학교 개교식에서 당간부를 양성하는 계통적인 「충분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중앙당학교 학생들에게 「종파주의」와 「지방할거주의」를 반대하고 당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을 잘 배울 것을 요구하였다(김일성, 1946a).

김일성은 이 중앙당학교 개교식에서 한 연설에서 더 많은 학생을 입학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김일성이 요구한 학생은 ① 일본제국주의와 자본·자본가의 착취와 억압 밑에서 고생하였던 사람들, ② 일본제국주의와 싸웠던 사람들,

③ 각 지방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였던 사람들, ④ 여성들, ⑤ 남조선 출신자들이다. 이중에서 여성은 그 때 「남녀평등권법령」이 준비 중인 배경에서 강조된 것이다. 남조선 출신자는 남반부에서의 혁명사업이 기대되기 때문에 있던 것이다. ①~③의 조건을 보면, 당간부에는 출신성분이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다(김일성, 1946a).

당간부뿐만 아니라 행정·경제기관 간부도 매우 부족하였다. 1946년 7월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 직속의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가 창립되었다. 김일성은 개교식에서 「행정경제기관에서 사업하는 현직간부와 지난날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압박과 착취를 많이 받아 온 로동자, 빈고농들 가운데서 좋은 사람을 받아들여 공부시켜야 하겠다」고 말하였다. 또 김일성은 「학생들을 훌륭한 민족간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우선 사상적으로 잘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 당시 「오랜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업이었으며, 「종파주의」와 「지방할거주의」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다(김일성, 1946b).

1946년 8월 29~30일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의 합당으로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가 열렸다. 1948년 3월 27~28일 북조선로동당 제2차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김일성은 간부의 부족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간부의 부족문제는 그때까지 상당히 해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김일성은, 1945년의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로부터 「당사업과 당생에서 일대혁신」을 일으켜서 「당중앙과 각급 당위원회들에 우수한 간부들을 새로 등용하고 지방관념, 친척 관념에 물젖은 자들과 종파주의, 지방할거주의, 개인영웅주의 및 자유주의 경향을 가진 분자들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당조직체계를 확립」하였다고 보고하였다(김일성, 1948). 김일성의 이 충화보고에 나온 「종파분자」는 오기섭, 정달현, 최용달 등인데 그들은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였던 공산주의자이었다. 김일성은 1945년의 제3차 확대회의 집행위원회로부터 1948년의 당제2차 대회 사이에 주로 국내공산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정연한 당조직체계」를 확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4월 테제」

1948년 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1949년 6월 북조선로동당이 남조선로동당과 합당하여 조선로동당으로 개칭하였다. 1950~53년의 전쟁중에 박현영을 비롯한 남조선로동당 인사들은 「종파」 행동을 벌렸다는 이유

로 전후에 숙청되었다. 남조선로동당 인사들을 숙청한 후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건설을 그 노선으로 취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건설 노선을 밝힌 것이 1955년 4월의 김일성의 「모든 힘을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태제」(4월태제)이었다. 이 태제는 그 동안의 북반부에서의 과업을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이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들어서게 된 것을 선언한 것이다. 「4월태제」는 북반부를 혁명의 「원천지」인 「민주기지」로 하여 그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고 그 「민주력량」으로 남북통일을 촉구하는 전략을 말한 것이다 (김일성, 1955a). 「4월태제」는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강조하였는데 1957년으로부터의 제1차 5개년계획을 제기하였다.

김일성은 「4월태제」와 같은 시기에 「당내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제기하였다. 「당내계급교양사업」은 당원을 맑스-레닌주의 교양으로 무장시켜서 인민을 사회주의건설로 동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당내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서는 그것을 담당하는 「선전선동일군」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즉, 김일성은 사회주의건설로 인민을 동원하는 사업의 기초학립을 위한 「당내계급교양사업」을 통하여 「선전선동일군」이라는, 정규 지휘계통과 다른 별개의 영향력 통로를 가지게 된 것이다(김일성, 1953b).

김일성은 「당내계급교양사업」과 병행하여 「당성단련」을 제기하였다. 1955년 11월 중앙당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김일성은 「당원들의 당성단련을 강화하는 것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고 말하였다. 「당성」이란 김일성의 말에 의하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었다. 이 시기에 「당성단련」이 요구된 이유는 당의 역사가 아직 짧아서 질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것과, 허가이, 박현영 등의 「종파주의」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김일성은 지적하였다(김일성, 1955c). 즉 「당성단련」은 당 조직 강화와 허가이 등의 소련파 숙청, 박현영 등의 남조선로동당파의 잔재 청산이라는 두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다.

김일성의 권력구조는 정규 지휘계통뿐 아니라 「당내계급교양사업」이나 「당성단련」 등 재교육을 포함한 간부양성을 통하여 개개 간부에게 영향력을 주는 데서 그 특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V.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적 원칙」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가 진행되었다. 거기서는 다음 해에 시작하는 5개

년 계획이 토론의 중심이었다. 이 대회에서는 당규약 개정도 있었다. 그때로부터 당규약에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당하급 기관은 당상급기관에 복종하며, 전체 당단체는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적 원칙」이 명시되었다. 대회에서는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내민주주의」의 발양, 비판과 자기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 그리고 「당조직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집체적 지도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기되었다.

1957년에는 김일성의 말에 의하면 「당중앙위원회 간부부를 없애고 매개 부서들에서 자기 부문의 간부사업을 직접하도록 하는 새로운 체계」가 성립되었다(김일성, 1958a). 그것은 당중앙위원회의 사업들이 많아지고 복잡화하였기 때문에 취한 조치, 즉 당중앙위원회가 필연적인 「관료화」 때문에 취하게 된 조치로 추정된다. 1958년 3월에 김일성은 각부서에 대하여 「자기 산하 일군들을 료해하는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당조직지도부가 각 부서의 간부사업을 종합하고 당기관의 간부와 근로단체의 간부를 책임지게 하였다. 이 조치는 「관료화」의 해독으로 나온 당중앙위원회 각부서의 섹션리즘의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에서 간부사업 계통이 정리됨에 따라 지방, 공장의 지휘계통도 정비가 되었다. 1959년에는 지방 인민위원회는 해당 당집행위원회(당위원회의 기관)의 통제 밑에서, 공장은 공장당위원회의 지도 밑에서 사업하게 되었다. 공장당위원회는 내각결정(內閣決定) 혹은 성령(省令)을 받아 당위원장과 지배인을 「집체적」으로 지도하게 되었다. 공장당위원회는 「공장에서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되었는데, 내각결정 및 성령을 부결할 권한이 없고 오직 집행만 하게 되었다. 공장당위원회가 내각결정이나 성령에 의견이 있을 때는 내각이나 성이 아니라 당중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으로 되었다(김일성, 1959a). 1959즉 당기관인 공장당위원회는 국가기관인 내각에서 내리는 결정, 성령을 받게 되며, 의견이 있을 때는 당기관인 당중앙위원회에 제기하는 체계가 된 것이다. 이러한 지휘계통은 당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이 일체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조직의 「관료화」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적 원칙」의 귀결로 나타난 것이다.

VII. 「간부의 혁명화」

1957~58년 사이에 김일성이 당중앙위원회의 간부사업 지휘계통을 변경시킨 것은 1956년의 후루시초프의 스딸린 비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박창

옥, 최창익 등은 「반혁명분자」, 「수정주의자」로 숙청되었다. 그리고 김두봉도 그들과 같이 숙청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사법성 부상(司法省副相) 박용숙, 검찰총장 조성모, 최고재판소 소장 황세환도 숙청되었다.

1958년에 당조직지도부가 큰 권한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사법부문의 간부배치와 관련된 일이었다. 사법부문의 숙청이 끝난 후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라는 연설을 김일성이 한 것도 그것과 관련된 일이었다. 그 연설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조한 것이며 후루시초프의 「수정주의」의 영향을 견제할 목적이었다(김일성, 1958b).

「수정주의」를 반대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당일군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특별히 중요시한 것 같다. 1959년 김일성은 당일군에게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분야를 다 지도하여야 하는 것만큼 풍부한 지식과 넓은 시야와 예리한 안광」을 가지는 것을 요구하며, 「적어도 매일 두시간 이상 학습하는 제도」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당일군은 당조직에 대한 「복종」, 「사상정치수준」, 「혁명적 도덕규범」을 가지는 것도 요구되었다(김일성, 1959b).

김일성은 당일군들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을 요구하였다(김일성, 1959c). 이러한 당일군에 대한 사상사업 강화는 「수정주의」 반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 구성원을 당주위에 결속·동원시킬 목적으로 있었다. 1960년 4월 1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각계 각종 군중들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결속시킬데 위하여」라는 결정이 채택되었다(『조선중앙년감』, 1961).

당일군과 대중을 이끄는 간부에 대하여 김일성은 그들의 지도력강화를 요구하였다.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오늘 당사업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로서 「간부대련을 계속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지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을 지적하였다. 군(郡)급 이상의 간부들에 대하여 중앙당학교, 인민경제대학, 공산대학 및 대학통신학부를 통하여 대학과정을 마치는 것을 요구하였다. 또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모든 분야에서 당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며 「당의 유일한 령도」 밑에 국가기관 및 근로단체에도 당정책을 관철시키는 것을 요구하였다.

1964년 근로자단체는 단체계약 등 노동조합 기능을 잃어버려서 완전한 당의 사상교육단체로 되었다. 1965년 3월 모든 농업근로자가 가입하는 농업근로자동맹이 결성되었다(『金日成主席革命活動』, 411). 또 김일성은 경제간부에 대하여도 「당성」을 강조하였다(김일성, 1964).

당원, 근로자, 국가기관 일군에 대한 사상사업 강화는 그 당시의 국제정세와 관련된 일이었다. 1961년 5월에 남반부에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고 일본

과의 수교를 촉구하였다. 1965년 남반부의 정권과 일본사이의 수교가 된 것은 북반부에 대하여 큰 충격을 준 것이었다. 한-일-미의 소위 「3각동맹」이 북반부에는 최대 위협으로 보인 것이다. 김일성은 북반부를 「혁명기지」로 규정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하려고 하였다. 전인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의 군사로선을 세운 것도 이 시기이었다. 경제도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하는 방침이 난 것도 이 시기이었다. 김일성은 근로자, 농민, 인테리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의 지도를 확립하려고 한 것이다(김일성, 1966). 계급교양사업은 간부에게 특별히 강화되는데 「간부의 혁명화」라고 불렸다. 「혁명화는 중앙에서부터 지방으로, 간부에서부터 당원으로, 당원에서부터 근로자로 이루어지고 온 사회가 혁명화」될 것으로 되었다.

김일성이 「간부의 혁명화」의 지침을 밝힌 것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이었다. 김일성은 여기서도 두 가지 계통을 통하여 간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VII. 「유일사상체계」

1967년 5월 4~8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가 비밀리에 열렸다. 이 회의는 「부류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를 숙청한 회의이고, 김일성이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함을 제기한 회의이었다. 숙청된 「부르죠아분자, 수정주의분자」는 박금철, 리효순, 림춘추, 김창만, 고혁 등이다(『金日成主席革命活動史』, 1990). 이 숙청에 대하여 김정일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金正日指導者』: 29).

「유일사상체계」 확립이란 김일성의 말에 의하면 「수령의 혁명사상, 당정책으로 온당을 무장시키며 혁명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金日成主席革命活動史』: 430). 김일성 자체가 「수령」이라는 말을 쓰고 자신이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하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의 사상과 노선, 정책을 요해하여 당의 혁명사상 이외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요구되었다. 또 「당의 유일사상에 반하는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적유교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모든 반당적 반혁명적 사조와의 투쟁」의 강화, 「당의 로선과 정책을 호응하며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과 함께 전당, 전국, 전군이 당중앙의 유일한 지도밑에서 일사불란히 움직이는 조직규율」의 확립이 요구되었다(『金日成主席革命活動史』: 428~436). 즉 「유일사상체계」의 「유일사상」이란 김일성 자

신의 사상을 의미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당중앙의 유일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일사상교양」강화의 조치가 나왔다. 「당학습강령」의 개편, 재직간부의 「한달강습체계」, 간부양성기관의 개선 등과 함께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이 정비되었다.

김일성은 1970년의 당제5차 대회에서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당의 「총격과업」으로 내세웠다. 대회에서 김일성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강조하였는데 그 「사상혁명」은 「온 사회의 혁명화·로동계급화」라고 말하였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은 「온 사회의 혁명화·로동계급화」의 중심 사업이고 「3대 혁명」의 중심으로 된 것이다(김일성, 1970).

김일성은 「3대 혁명」을 추진하는 「3대 혁명소조」를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파견하는 조치를 1973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3대 혁명소조운동」은 김정일에 의하여 「당중앙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전일적인 체계」로 진행하였다(『조선로동당력사』: 439). 그러므로 김일성은 김정일을 통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으로 정규 지휘계통과 달리 직접 지휘하는 경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되고, 1974년 2월 11~13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위원이 되었다. 1974년 2월 19일 김정일은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연설하여, 당사업의 기본과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고 선포하였다(『조선로동당력사』: 474). 10월초 김정일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70일 전투」를 제기하여 「70일 전투중앙지휘부」를 조직하였다. 정규 지휘계통을 떠나 집중적인 경제적 동원을 한 「70일 전투」는 그 후에도 「속도전」 방식으로서 가끔 진행되었다. 『조선중앙년감 1975』에는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투쟁이 심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전당, 전국, 전군이 한 몸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체계가 더욱 확고히 서게 되었으며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1974년은 김일성이 「유일적 령도체계」와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체계」가 확립한 시기다. 1975년에는 김정일은 「3대 혁명 밝은기 쟁취운동」이라는 대중운동을 조직하여서 또 다른 지휘계통을 가지게 되었다.

VIII. 「배움의 나라」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체계」는 1974년에 확립되었지만 「정치적 후계자」로 될 때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다. 『조선로동당력사』에는 「1974년 말부터 1976년 사이에는 전반적인 당조직들에서 새원칙을 재접수, 재토의하는 사업이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진행되었다」고 기록되고 있다(『조선로동당력사』: 478).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확실히 된 1977년은 6개년 계획을 마친 다음 해이었다(『北朝鮮研究』, 1977: No. 34). 김정일은 즉 6개년 계획기간에 후계자로서의 기반의 기초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가 지도한 「3대 혁명소조」, 「3대 혁명 붉은기 생취운동」도 목표는 6개년 계획의 완수이었다.

6개년 계획기간에는 교육체제가 발전되었다. 1975년에는 전국적인 11년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계획기간에 대학은 129교에서 170교로 되었다.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제도 확립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배움의 나라」로 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이렇게 교육체제를 세우면서 「주체사상교양」을 간부, 당원, 대중에게 시켜왔다. 김정일은 그 교양사업을 담당하는 「선전선동부」를 장악하여왔다.

지금 간부의 교육체제는 「매일 두시간 이상 학습하는 제도」, 「화요일 학습」, 「수요일 강연」, 「토요일 학습」, 「한달 강습」, 「월간 당생활 총화」 등이 있다. 1971년에 김일성은 그중에 「매일 두시간 이상 학습하는 제도」, 「수요일 강연」, 「토요일 학습」, 「한달 강습」이 벌써 확립된 것을 말하였다. 나머지 간부교육제도는 김정일이 나중에 확립시킨 것 같다. 그중에 「화요일 학습」은 과학 기술의 학습이며, 김정일의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다. 1982년에 준공된 인민대학습당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정무원 위원회부(部) 행정·경제 지도간부들과 공장, 기업소 과학기술지도간부에 대하여 강습을 한다. 당간부의 재교육 양성기관은 김일성고급당학교(전의 중앙당학교)가 평양에 있고, 각도에 공산대학, 각군에 군당학교가 있다.

김정일은 간부양성 뿐 아니라 선발, 배치에도 큰 힘을 가지고 있다. 1974년 7월 말~8월 초에 열린 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김정일은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조선로동당력사』: 479). 김정일이 구체적으로 취한 조치는, 「정수분자」를 선발하여 간부로 등용하는 조치, 노간부(老幹部)와 젊은 간부를 짓는 조치, 인테리간부와 노동자출신간부를 짓는데로 노동자출신간부의 비중을 부단히 높이는 조치, 간부의 개별적 교양체계를 세워서 현직간부를 재

교육시키는 조치, 후비간부(後備幹部)를 전적으로 장악하여 계통적으로 장악하여 계통적으로 양성하는 조치 등이다(『金日成主席革命活動史』: 509). 김정일은 간부사업과 개개 간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방향으로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IX. 충실성과 실무적 수준

조선로동당 간부의 제일의 표징은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다(김정일, 1979). 그러나 실무적 수준도 요구되어 있다. 김정일은 「열의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하는 시대는 벌써 지났다」고 말한다. 김정일은 실무능력으로 「교묘한 조직수완과 혁명적 전개력, 풍부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김정일, 1979). 그리고 간부에 대하여서는 「인민적 사업작품」을 가지는 것도 요구되어 있다. 「인민적 사업작품」이란 「명령적 행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하여 「해설」과 「설득」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다. 1980년 대에 들어 경제실무상의 요구와 당간부들의 능력과의 괴리를 보여주는 징후가 나타난 것 같다.

1981년 8월과 1985년 5월에 김일성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중앙과 지방의 경제지도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의 행정경제지도사업을 통일적으로 더 잘 보장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조선로동당역사』: 550).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때 정치지도체제에서 문제가 나타났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1984년 김정일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일군들 사이에 무책임, 국가결정 무시 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행정·경제사업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는 당회의를 행정 책임간부가 지도할 것을 지시하였다(김정일, 1984a).

1985년 련합기업소의 조직에서 당비서의 등급을 지배인보다 반등급 밑에 설정하였다. 이 조치는 김정일의 설명에 의하면 당비서의 권력람용, 독단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정일은, 인민군에서 임무에 충실한 정치일군은 비록 계급장이 군사지휘관보다 밑에 있어도 군사지휘관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예를 들었다(김정일, 1986). 김정일의 설명을 뒤에서 해석하면 련합기업 소 지배인은 기업소의 지휘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 조치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 책임간부와 련합기업소 지배인의 지위가 상승한 1984년과 1985년은 경제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던 시기이었다. 1983년 11월 29일~12월 1일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

를 원만히 총족시키기 위한 과업」과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었다(『로동신문』, 1983년 12월 2일). 김일성은 1984년의 신년사에서 「한 두해 안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방침」을 내세웠던 것을 밝혔다(『로동신문』, 1984년 1월 일). 1984년 1월 26일 최고 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에서는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여 무역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가 채택되었다(『로동신문』, 1984년 2월 27일). 당시 이 시기에 「경공업 혁명」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재 공급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수출품 개척이라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소비재와 수출재 생산은 시장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당의 정치적 지도에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행정·경제간부와 련합기업소 지배인의 지위상승에는 북반부 경제가 시장기능을 상대로 하여야 한 시기에 온 것이 그 배경이 있었다.

북반부 경제문제는 정치문제까지도 되었다. 경제정책변화와 같은 시기에 당 제7차 대회의 연기가 결정되었다. 김정일이 1984년 2월 16일에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협의회를 소집해서 한 연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에서는 김일성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나서」 당대회를 열 것을 말하였다는 말이 나왔다(김정일, 1984b). 경제문제가 정치일정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된 상황에서 김정일은 남북 사이에서 군사적 정치적 대치상태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전」을 벌이고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김정일, 1986). 련합기업소 지배인을 군사지휘관의 유추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경제의 시장기능의 영향보다 「경제전」이라는 정치·군사적 상황인식에서 나온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1991년 12월 28일 처음의 경제특구인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에 관한 정무원 결정이 발표되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정무원이 주도하여 「민간단체」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 경제특구에 관하여 당에서는 특별한 조치나 발표가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다. 199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강성산을 정무원총리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경제 테코노크라트이고 경제특구가 위치한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겸 당위원회 책임임비서인 강성산을 당시 택한 배경에는 행정 경제간부의 지위 상승이 있을 것이다.

X. 맺음말

조선로동당은 1948년 당조직을 확립할 때까지 간부부족문제를 상당히 해결

하였다. 그리고 당의 중앙집권제를 확립하며 행정·경제간부에 대한 당간부의 우위성을 튼튼히 세웠다. 여기서 당과 국가의 일체화가 진행되었다. 또 선거의 형해화는 빠른 시기에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집권적인 지휘계통과 다른 영향력 통로는 「계급교양사업」을 비롯한 「학습」이었다. 1970년대에는 「70일 전투」를 비롯한 「속도전」, 「3대 혁명소조운동」 등의 또 다른 별개 지휘계통도 나타났다. 현재 김정일은 당간부사업을 총화하는 조직지도부, 계급교양사업을 담당하는 선전선동부, 「속도전」의 지휘, 「3대 혁명소조운동」의 지휘,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지휘 등을 장악하여 간부사업과 간부지휘계통을 잡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당간부의 지위에 관하여 변화가 보이게 되었다. 그것은 행정·경제간부의 지위상승이다. 그것은 남북사이에 「심각한 경제전」이 진행중이라는 인식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전」 인식은 당의 간부사업에 대하여도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간부 선발·배치에도 경제 테크노크라트 출신 간부들의 우위성이 나타날 것이 예측된다.

참고문현

『로동신문』

『조선로동당력사』

1991 『조선로동당력사』, 조선로동당출판사.

金日成

1945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1』, 조선노동당출판사, 1967.

1946a 『中央黨學校は黨幹部を養成する共産大學である』, 金日成, 『民族幹部養成のために』, 1982, 白峰文庫.

1946b 『민족간부는 새조선건설의 기둥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1948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선집1』,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1955a 『모든 힘을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선집1』,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1955b 「당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1』,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1955c 「黨學校における教授・教育の基本は學生の黨成を鍛えることである」, 김일성, 『民族幹部養成のために』, 백봉문고, 1982.

1958a 「당사업을 개선할데 위하여」, 『김일성저작선집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958b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선집2』, 조선로동

- 당출판사, 1968.
- 1959a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13』,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1959b 「당사업 방법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2』,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1959c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1959년 2월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김일성 저작집13』,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1961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집3』,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1964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4』,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1966 「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김일성 저작집4』,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1970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집5』,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 金正日
- 1979 「黨の指導體制の確立について」, 金正日, 『黨の指導的役割を高めるために』, 外國文出版社, 1992.
- 1984a 「中央機關の黨組織の役割を高めるために」, 金正日, 『黨指導的役割高』, 外國文出版社, 1992.
- 1984b 「人民生活をさらに向上させるために」, 『月刊朝鮮資料』, 1990.
- 1986 「黨と革命隊伍の強化發展と社會主義建設の新たな高揚のために」, 金正日, 『黨の指導的役割を高めるために』, 外國文出版社, 1992.
- 『北朝鮮研究』
- 1976 「國家政治保衛部の組織と實態」 Vol. 2, No. 16.
- 1977 「金正日確立に關する總連中央の幹部學習提綱」 Vol. 2, No. 34.
- 『조선중앙연감』
- ラズオフ° レス
- 1990 『北朝鮮の現況 1990』
- 孔卓虎
- 1976 『北傀政治保衛部内幕』, 弘元社.
- 外國文出版社
- 1983 『金日成主席革命活動史』, 外國文出版社.
- 1992 『金正日指導者』 外國文出版社.
- 在日本朝鮮人通信教育協會
- 1963 『조선로동당규약해설』 학우서방.
- 鐸木昌之
- 1992 『北朝鮮—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 東京大出版社.